최연의 산 이야기 〈25〉 덕유산 2

살아 천년 죽어 천년 주목 나무가 도인처럼 서있다.

남덕유의 정기는 명문세가를 낳았구나

〈精氣〉 〈名門勢家)〉

남사고(南師古) 선생의 <격암유록(格庵遺錄)>에 의하면 덕유산(德裕山)과 지리산(智異山) 사이에는 사람을 살리는 기운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산 이름이 의미하듯이 넉넉한(裕) 덕(德)과 별다른(異) 지혜(智)가 충만하기 때문에 정기(精氣)와 수기(秀氣)가 가득한 모양이다.

<격암유록>에는 덕유산, 지리산 이외에 계룡산, 속리산, 소백산, 태백산 등이 등장하는데 이 산들은 모두 후천개벽(後天開闢)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한다.

이들 산도 그 이름에서 지향하는 이상향이 담겨 있다. 계룡(鷄龍)은 용이 승천하는 곳, 즉 하늘세계를 말하고, 속리는(俗離)는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다. 둘 다 속세의 욕망과 번뇌로부터 해방되어 이상세계로 들어감을 뜻한다. 그리고 소백(小白)은 티끌 하나 없이(小) 깨끗한(白) 마음이고, 태백(太白)은 가없이 크나큰(太) 정결한(白) 세계를 말하는데, 둘 다 마음에 묻은 티끌들을 모두 씻어내고 이상향(理想鄕)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덕유산의 정기(精氣)가 넉넉한 덕, 즉 뭇 중생을 향해 큰 사랑을 베푸는 불?보살과 같은 자비로운 마음을 길러주는 것이다.

덕유산은 주봉인 향적봉(香積峰)을 기점으로 중봉을 거쳐 동업령에서 낮아져 무룡산을 다시 일구고 삿갓봉을 지나 남덕유산에 이르는 남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를 말하는데 일련의 여러 봉우리들이 이룬 산군(山群)을 의미하는데 지세(地勢)로 보아 덕유산의 정기(精氣)는 북덕유산보다 남덕유산에 더 많이 맺혀 있는 듯하다. 그래서인지 1594m의 북덕유산을 '제2덕유산'이라 하고 1503m의 남덕유산을 '제1덕유산'이라고 부른다.

북덕유산이 복지(福地)인 무풍(茂?) 고을을 품었다면, 남덕유산은 명문세가(名門勢家)가 많은 거창(居昌)과 안의(安義) 고을을 부려 놓았다. 거창을 '오백년무반향 천년현달지지(五百年無班鄕 千年顯達之地)'라고 일컫는데, 오백년 동안 양반이 없는 고을이었다가 일천년 동안 지위가 높아지고 이름을 천하에 드날릴 고장이 된다는 뜻이다. 첫 번째의 '무반향(無班鄕)'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거창의 명문세가는 거의가 옛 안음(安陰) 땅에 있었다고 한다.

안음은 지금의 안의(安義)를 말하는데 고려시대 때부터 있어온 현(縣)으로서 조선시대에 와서 고을 이름에 음택(陰宅)을 의미하는 음(陰) 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안의현(安義縣)으로 고쳐 불렀다. 그러다 고종 32년(1895년)에 안의군(安義郡)으로 승격한 이후 1913년 일제치하에서 함양군과 거창군에 분할 편입되어 반은 거창군에 귀속되고 남은 지역은 함양군 안의면(安義面)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두 번째 '천년현달지지(千年顯達之地)'라는 것은 <정감록(鄭鑑錄)>의 감결(鑑訣)에 의하면 계룡산(鷄龍山)의 정씨(鄭氏) 8백년 도읍(都邑) 다음에 가야산(伽倻山)의 조씨(趙氏) 일천년 도읍이 시작되는데 그 도읍지가 바로 가야산의 지맥이 끝나는 거창군 가조면 고만리 들이라는 데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정씨의 계룡산 도읍이 시작되면 거창 고을이 명신(名臣)과 석학(碩學), 거유(巨儒)를 많이 배출한 경북의 상주(尙州)와 선산(善山)처럼 된다는 것이다.

거창이 배출한 많은 명문세가 중 거유의 집안인 선산 김씨(善山 金氏)를 대표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를 주로 해서 거창 일원에 거유인 강호(江湖) 김숙자(金叔滋)의 손자 대에서 비롯되는 선산 김씨의 후예들이 4백 여 년 간 모여서 산다. 그런데 김숙자는 거창과는 관계없이 경북 선산에서 태어나서 야은(冶隱) 길재(吉再)에게 글을 배우고 만년을 경남 밀양(密陽)에서 보내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점필재(?畢齋) 김종직(金宗直)은 아버지의 학문을 능가하여 주자학의 당대 1인자로 영남사림(嶺南士林)의 종조(宗祖)가 되었다.

조선의 국시(國是)가 된 유교의 주자학(朱子學)은 '성명(性命)과 의리(義理)를 탐구하는 학문'이라서 성리학(性理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론(理論)을 세운 이가 주자(朱子)여서 간편하게 주자학 또는 정주학(程朱學)이라고도 하는데, 성리학은 한국에 전래된 외래사상 중에 가장 한국적인 변신과 발전을 이룩하여 관혼상제(冠婚喪祭)를 비롯한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유착된 사상이다.

주자학은 고려 후기에 회헌(晦軒) 안향(安珦)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들여와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와 야은 길재를 거쳐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김숙자와 그의 아들 김종직에서 한선당(寒宣堂) 김굉필(金宏弼)과 일두(一?) 정여창(鄭汝昌)과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로 이어지다가 퇴계(退溪) 이황(李滉)에 이르러 새롭게 발전한다. 주자학의 한국화(韓國化)가 이로부터 시작되어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남명(南冥) 조식(曹植)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자학은 조선 초기에 김숙자와 그의 아들 김종직에 의해 확고하게 뿌리내렸던 것이다.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상사화

무더위 속에서 상사화가 솟아났다. 창 앞에 긴 목을 빼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꽃을 나는 오래도록 바라보며 앉아있었다. 이른 봄에 칙칙한 땅거죽을 뚫고 나오던 잎의 푸르른 모습이 어제처럼 파란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그 언제 잎이 지고 모습을 감췄는지도 모르게 흘러간 봄과 여름의 끝에서 기다림의 목을 빼어 꽃송이를 피웠다.

꽃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자니 점심 무렵까지 곁에 있다가 떠나간 사람의 얼굴이 못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함께 하고 싶으나 각자의 삶이 있으니 그럴 수는 없는 사람이다. 어쩌다 한 번 만나는 현실이나마 고마워하며 살아갈 일이다.

"수고 많이 했어. 바쁠 텐데. 데리고 다니느라 시간만 뺏기고."

"이렇게 찾아오시기라도 해야 얼굴 한 번 보죠."

실없는 인사말만 남기고 누님은 떠나갔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것처럼 보였지만 비는 오후 내내 오지 않았다.

누님의 몸은 일 년 전보다 말랐다. 당뇨로 고생하면서 입맛까지 잃어 영 힘이 없다는 얘기 끝에, 또 다른 병이 걸려 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는 말을 덧붙여 툭툭 풀어놓았다.

"국민학교 졸업 때 우등상장을 받았는데 이웃사람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사라고 해서 술을 사셨다고 그러더라."

어둠을 두드리며

내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자니 창 앞에서

비를 맞는 상사화의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보였다

누님은 어린 시절 얘기까지 또 꺼내셨다.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신 뒤, 초등학교 시절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하며 자라난 누님이다. 나는 누님이 해준 밥을 먹고 누님이 빨아준 옷을 입었다. 기억하기도 싫을 것 같은 시절의 얘기를 나뭇가지 사이로 흐르는 바람의 얘기인 듯 풀어놓는 누님의 모습은 이미 한 세상 다 산 모습이었다. 힘 좀 내시라고 하고 싶어도 선뜻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좋은 계곡에 가고 싶다는 말에 산 넘어 미사리 계곡으로 가서 물가에 자리를 펴고 앉아 싸가지고 간 밥을 먹으려는데 지나던 사람이 내게 말했다.

"여기서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원래 들어오지도 못하게 입구를 막아놓는 곳인데, 주민들만 드나드는 곳입니다. 들어오면서 천에 쓰인 거 못 봤어요? 경고문도 있을 텐데. 자연휴식년제 기간인 거 모르시나? 걸려서 사진 찍히면 벌금 백만원 내야 됩니다."

'그 사람, 말이나 좀 곱게 하지.' 입구에 뭔가 요란하게 써놓은 것을 언뜻 보기는 했다. 그건 그렇고, 차를 세운 뒤 무슨 글이 써있는지 잘 살피고 계곡에 들어서야 할 의무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가? 보호해야할 소중한 계곡이라면 애초에 시멘트로 포장도로를 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잠시 의아한 기분에 휩싸였다. '감시원이라도 세워놓던가?' 영 못마땅한 일이었다. 펼쳐놓은 밥과 반찬을 한 술 뜨지도 못한 상황에서 서둘러 계곡을 벗어나면서 나는 누님의 얼굴을 잠시나마 마주보지 못했다.

'에이 자식, 꼭 경찰이나 군인처럼 얘길하네.' 계곡을 벗어나는 차안에서 입속말로 주억거려보았지만 흐트러진 기분은 좀체 정리가 되지 않았다. 입을 꾹 다문 채 김삿갓 계곡으로 가서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함께 온 초등학생 조카는 다행히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물속에서 잘 놀았다. 딸에게 구경을 시켜주고 싶다며 천문대를 가자는 누님의 말에 따라 저녁이 되기 바쁘게 읍내로 나갔다. 내려앉은 어둠을 헤치고 산으로 올라 매표대의 직원 앞에 서서 돈을 내밀었다.

"예매하지 않았으면 오늘 입장할 수 없습니다."

매표원의 음성이 싸늘했다. 아뿔싸, 또 잊고 있었다. 입장권을 예매 한다는 사실을 나는 또 어찌 까맣게 잊고 있었을까? 천문대 앞에서 사진 한 장 찍고 내려오는데 참 할 말이 없었다. '나도 참 무심하게 살아가는구나!'

비틀거리는 내 삶이 그대로 드러났던 하루를 보낸 다음 날, 집에서 가까운 만경사에 들렀다가 누님은 서울로 돌아갔다. 새벽으로 가는 밤 시간이 되어서야 비가 내렸다. 어둠을 두드리며 내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자니 창 앞에서 비를 맞는 상사화의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보였다.

■유승도 (시인)

이재복 지음(270면)

폐결핵으로 한쪽폐가 없어지고 간경화, 위궤양, 대장염으로 복수가 차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이 병원에서 마저 쫓겨나 죽음을 기다리다 무심코「발치기」운동으로 살아난후 세계최초로 창안한 활인건강법!

"이운동으로 죽을 병고친사람, 몸이 더욱더 건강해진 사람, 정력이 변강쇠처럼 된 사람 무수히 많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제병을 제가고치는데 안하니까 문제여, 이운동은 무병장수할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여" (본문에서)

빛 살림 정正골骨 요법

도서출판 창조, 값10,000원

그림을 보고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평생 척추, 골반, 관절 걱정없다

퇴행성관절, 안짱다리, 고관절, 디스크, 좌골신경통, 오십견, 견비통, 목뻣뻣, 수족냉증, 두통, 갑상선질환, 불면증, 상기증

젖먹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인「기지개운동」을 통해 건강하게 무럭무럭자란다.(생명의 신비!)
강력한 생체전기가 전신을 감싸고 입안에서는 단침이 몽클몽클, 내분비계통을 활성화 시켜서 만성적인 성인병을 치유하는 기지개운동법 수록

골반 골반변형이 만병의 원인! (불임, 생리통, 수족냉증, 무릎관절통) 가장빠른 골반교정운동, 스스로하는 평생골반관리법, 편안하게 누워서 골반과 전신의 균형을 잡는법 수록!

척추 뇌에서 내려오는 30,000가닥의 신경다발이 추간공을 흐르고 있다. 척추는 오장육부의 뿌리, 비뚤어진 척추를 스스로 바로잡아 질병의 뿌리를 뽑는다.

복부 뱃살과 전쟁, 복부비만을 아주쉽게 해결한다. 물혹, 자궁근종, 위염, 위궤양, 변비등의 원흉인 복부적취를 가장쉽고 빠르게 해결하는 온열쾌장운동법!

근육 근육의 긴장, 수축, 노화로 인해 신경, 혈관, 림프관의 압박으로 신경통, 근육통등 각종 통증에 시달리게된다. 근육풀이 건강법으로 통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통증치유법수록!

국제정골요법협회
소백산수련원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 도서구입안내 : 이 책은 서점에는 없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책신청 : 054)637-9810

■ 농협계좌 : 751017-52-024285 김순옥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 (1박 2일) –

정골요법 속성반 강좌에서는 놀라운 건강법이 공개됩니다. 각종 통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에게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즉석에서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눈으로 보여드립니다.

책 구입시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